

# 미래지향적 제도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

(해당 실: 재정관리관, 과: 민간투자정책과, 담당자: 조문경, 전화번호: 215-5451)

## I. 추진 배경

-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등 최근 악화된 사업 여건과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걸림돌

⇒ 민간투자 30년 계기,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

## II. 정책 내용

- **(현안 해결)**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
  - '21~'22년간의 **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**를 마련
  - **24조원 이상**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**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**
    - 출자전용 인프라펀드를 신설(2,000억원+ $\alpha$ )하고, 공모인프라펀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차입한도(30→100%)와 투자대상을 확대
    - 그 밖에 **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** 설립을 허용하고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인 4조원 이상으로 확대 등
- **(제도 혁신)**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, 국민 편익을 제고하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
  - **'운영 중'인 기존 민자시설에 대해 개량·증설이 가능하도록** 하여 노후·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
  - 유휴 국·공유지에 복지·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**'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'**을 신규 도입
  - 그 밖에 생활SOC 사업, 결합형 민자사업, 새로운 대상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혁신 및 지원 등

### 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- 현안 해결,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 혁신  
⇒ **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**
  - \* 민투법 개정 추진(박성훈의원 대표발의, 10.17일), 민투법 시행령 개정 완료(12월 초),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완료(10.14일)
  
- 공사비 특례 및 개량운영형 사업,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
  - **‘서부선 민간투자사업’**이 ‘21~’22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협상이 어려웠으나, 활성화 방안(10.2일) 공사비 특례에 따라 협상 완료 → 12월 민투심 상정 예정
  - **활성화 방안(10.2일)의 공사비 특례를 일괄 반영하여 ‘21~ ’22년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중단·분쟁 중인 47개 교육 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\***을 정상적으로 진행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    - \* (초중등) 금호여중, 동구로초, 도신초 등 / (국립대 및 생활관)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등
  - **운영 중인 노후·혼잡 시설에 대한 개량·증설방안 마련** → 민자적격성조사 이후 중단되어있던 **개량운영형 사업**의 제3자 제안공고안 KDI 검토 중(10.17일~)
  - **‘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’** 절차 신설→ 서울시 유희 국·공유지 총 3개소에 대해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공모 중(11.5~)
  
- **출자전용 인프라펀드를 신설(2,000억원+α)하며, 발해 인프라펀드 유가증권시장 상장(공모전환) 절차 진행 중**
  - “**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**”를 **‘25년부터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0.2조원 민간투자 자금 확보 기대**
  - **활성화 방안(10.2일)에서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KB 발해인프라펀드 상장 완료(11.29) →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, 18년 만에 두 번째 공모 인프라펀드 상장 사례임**
    - \* 일반 국민의 장기 안정적 투자자산으로서 역할 기대 (향후 3년간 배당수익률 연 7.74% 수준, ‘발해인프라 증권신고서’ 기준)